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값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값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을이 ㉠이라면 을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을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과 ㉡ 이외에는 ㉢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27.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WEEK1 2020학년도 수능 비문학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1문단을 읽을 때 “반면”을 보면서 아, 전통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읽어야 하겠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쪽 읽다보니 “달리” 라고 언급하면서 차이점을 친절하게 분류해 주네요. 만약 문장이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라고 제시 하더라도 이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문단에서 제시한 전통적 인식론자의 믿음의 태도는 참, 거짓,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네요.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통해서 표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베이즈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2문단을 읽어봅시다.

※ 1문단 정리
 전통적 인식론자 : 믿음 = 참 or 거짓 or 참, 거짓 모두X
 베이즈주의자 : 믿음 = 정도의 문제, 약한 믿음 ~ 강한 믿음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문장,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다고 제시합니다. 아, 조건화 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건화 원리가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파악하면서 가야겠죠? 어쨌든 조건화 원리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설명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글자 그대로 보면서 다음 문장을 읽는 태도를 갖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가 나오네요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라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네요. 우선 ‘비가 온다’라는 관련된 두 명제가 나오면서 전자가 참이면 후자가 참이라는 걸 더 강하게 믿는다. 즉, “믿음의 정도”에 관련된 것이네요.

즉, 앞에서 말한 명제에 대한 사실을 참, 거짓 유무를 알게 되면 “믿음의 정도”를 새로 갖는다는 걸 끌어와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믿음의 정도”라는 화제를 의식하면서 읽어주세요.

※ 2문단 정리
 명제에 대한 참 or 거짓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
 → 믿음의 정도가 변화 → 조건화 원리의 적용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새롭게 알게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 없는 것도 있다고 제시하네요. 첫 문장을 읽으면서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눈치 챘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를 보면 비가 온다는 명제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관련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비교하면서 읽으면 앞 문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관련 있는 명제는 믿음의 정도가 변해야 한다고 제시했겠구나. 하고 파악 가능하겠네요.

다음 문장, 계속 같은 내용을 언급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이유는 관련 있는 명제를 뜻하겠죠?

※ 3문단 정리
 믿음의 정도 변화 = 관련 없는 명제인 경우 해당 X
 특별한 이유 = 관련있는 명제에 대한 사실
 → 믿음의 정도가 변화해야 함.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2문단에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웠지만, 3문단에서 기준만 잘 잡아서 읽었다면 4문단 첫 문장처럼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이 문장을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당연히 학교를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행위" 라는 점 파악하셨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문제에도 적용을 합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마지막 문장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을 뒷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 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겠네요. 앞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문이지만 어려운 정보는 글자 그대로 처리하면서 비교/대조하며 읽었다면 충분히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 4문단 정리
 실용적 효율성 추구
 → 관련없는 명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정도 유지
 → 합리적인 사람

결국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정도"라는 화제를 끌고 와서 읽어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비문학은 화제를 끌어오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2020학년도 9월 점유 지문만 봐도 화제를 계속해서 끌고 와서 읽어야 개념들이 이해가 되는 지문이에요.

비문학을 읽을 때, "앞에서 말한 화제를 지문이 끝날 때까지 이어가자." 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정보량이 많거나 비교 대조가 계속되는 지문에서 화제를 까먹을 수 있는데 저는 의식하면서 읽느냐. 의식하지 않고 읽느냐. 이 태도의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요 조직합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첫 문장부터 정보량이 폭탄일 거 같은 느낌이 드는 지문입니다. 최대한 정보를 줄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식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일부'를 이식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한대요. 그런데 동종 이식을 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이해하고 나머지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정리해봅시다. 동종 이식을 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동종 이식은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이라고 했으니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이식편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깐 괜찮지만 다른 내용이라라도 서로 비교하며 읽어줘야 해요! 다음 문장. 면역 거부 반응은 MHC의 차이에 의해 생긴대요. MHC의 차이는 거리가 멀수록 커지고 이를 통해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고 하네요.

거리 ↑ MHC차이 ↑ 거부반응 ↑ (+) 비례 관계임을 체크하고 갑시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여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 상황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을 갖고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 1문단 정리
 동종 이식 → 면역 반응 → 거부 반응
 → 면역 억제제 (S) → 질병 감염 위험성 ↑ (P)
 거부 반응 = 거리 ↑ MHC차이 ↑ 거부반응 ↑ (+) 비례 관계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비싸고 이식편이 부족해서 전자 기기 인공 장기라는 대체 방안이 나와요. 전자 기기 인공 장기는 일시적 대체.. 정기적 부품.. 추가 전력.. 아무튼 "일시적"이라서 아직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정보들은 지금 다 외우자! 라는 마인드보다 "전자 기기 인공 장기의 문제점"은 2문단에 있어. 라는 정리를 하고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돌아와서 푸시는 게 정확도와 속도 모든 면에서 좋을 거예요.

※ 2문단 정리
 동종 이식 어려움 → 전자 기기 인공 장기 이용으로 해결 BUT, 단점 많아서 어려움 (P)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동물의 이식편을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는 또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다고 하네요. 왜? 자연항체가 항원에 반응하면, 초급성 거부 반응과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요.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넘어갑시다.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경우가 있대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미니돼지는 장기 크기가 사람이랑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서 연구가 진행중이래요.

지문 구조가 어떤 개념이 나오고 문제점이 생기면서 또 다른 개념이 나오는 게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땐, 다음 문단에서도 다른 이식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OR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왜?" 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다음 문단을 예측하면서 읽으면 일종에 배경지식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3문단 정리
이종 이식 (S) → 거부 반응 (초급성/급성 혈관성) 매우 심함
→ 거부 반응 제거한 실험 성공 → 장점 많아서 연구ing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이종이식은 문제점이 많네요. 거부 반응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네요. 같은 대상이라면 문장을 연결해서 읽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연결을 안 하면..DNA의 일부분..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고..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고.. 우육) 아무튼 다음 문장.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유전 정보를 RNA에 담으며 역전사 효소를 가짐. 그리고 특정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답니다.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할 점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겠네요. 이런 문장이 주어지면 당연히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읽어야 해요.

일반적인 생명체가 DNA → RNA의 전사 과정인 "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으로 RNA → DNA이면서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고 하네요. 사실 전사/역전사니까 이름에서도 대립적이라는 느낌을 받죠?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가 나오니까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공통점이라는 걸 체크해주세요.

문제에 나오던 안 나오던 우리는 기출 N제가 아니라 지문 속에서 읽는 방법을 얻어가려 하는 거니까 연습해주세요.

※ 4문단 정리
거부 반응 말고 문제점 또 나옴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일반적인 생명체 DNA → RNA (전사 과정)
레트로바이러스 RNA → DNA → DNA 감염 (역전사 과정)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생기는 과정이 나오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손이 살아남은 세포의 특징을 물려받았나 봐요. 영 근데 이렇게 세대가 지나면서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의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서 다른 종에게 주입하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감염시키기도 한대요.
당연히 이 문장을 읽을 때 "이종 이식을 하면 ~" 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음 뭐가 아쉽네요.

※ 5,6문단 정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생기는 과정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음
→ 이들 자손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짐
→ 돌연변이로 변함 → 바이러스 활동X
BUT, 다른 생명체로 옮기면 다시 활동
연구 진행중..

이 지문은 1문단에서 주제 파악과 비례 관계 처리
2문단에서 문제 상황 파악과 공통점 처리
3문단에서 이항대립적 관계의 비교 대조를 통한 정보 처리
4문단에서 문제 상황과 해결방안 파악 P-S를 하면서 읽었으면 비교적 정보량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1문단에서는 국제법에 포함된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으니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조약과 관습법은 “명시적이냐 보편적이냐”로 분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규범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반면에~ 라고 제시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국제법으로 묶어서 생각하셔도 좋지만 언제나 기준은 명확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문장에서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걸 제시하니까 후자에 집중해서 읽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결정한 BIS비율 규제는 비회원 국가도 준수한다고 합니다.

둘을 연결해서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정보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국제법과 비교하며 읽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국제법의 효력과 비슷하게 후자에서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네요.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속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집중해서 읽어야겠네요.

※ 1문단 정리
국제법 : 조약 & 관습법
조약 : 명시적 규범, 관습법 : 보편적 규범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 법적 구속력 X
BUT, 신뢰의 구속력 발생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확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수식 정리를 해준 줄 알고 좋아했더니 수식의 구체화가 일어납니다. 수식은 적용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입하며 읽어봅시다. 위험가중자산 = 보유자산 * 위험가중치인데 위험가중치는 국채와 회사채로 분류해야 하는 또 다른 정보가 나옵니다. 벌써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는 게 느껴져요. 중요한 포인트에 체크해두고 문제를 풀 때 돌아와서 세세한 정보를 체크하면 되니까 국채와 회사채를 분류하고 이는 확일적으로 부여됐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서 읽으시다. 다음 문장에서 “이후~ 요구가 커졌다.” 라는 내용이 나오니다. 이에 대한 반영 사항으로 신용 위험 /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 신용 위험 측정 방식과 달리 시장 위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 승인 하)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바젤 1 협약이 완성됩니다.

이런 지문들은 분류 / 조건을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어차피 세세한 정보까지 기억하는 건 어려우니까 가져갈 수 있는 정보만 최대한 가져가고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돌아갑시다.

※ 2문단 정리
위험 가중치 → 확일적 부여
시장 위험 반영 요구 → 위험 가중 자산 새롭게 정의 (바젤 1)
시장 위험 측정 방식 → 은행의 선택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바젤 1 협약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끝나자마자 한계가 드러나서 바젤 2 협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쯤 읽을 때 생각할 건 다음 문단에서도 바젤 2의 한계를 드러내며 보완하는 협약이 나오지 않을까?

즉, '위험의 측정 방식'을 토대로 한 협약의 변화 과정이 제시될 거라는 점을 예상하며 "한계점" "변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젤 1과 달리 바젤 2는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고, 표준 모형 or 내부 모형 중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제시하네요.

표준 모형에서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바젤 1에서는 획일적인 반면, 바젤 2는 특정 범위가 나옵니다. "A와 달리 B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부 모형은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 하) 은행이 선택하게 해준다 하고 필요시 자기자본 최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 3문단 정리
 바젤 2 등장
 →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 모두 고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 : 표준 or 내부 모형 선택
 표준 : 국채, 회사채 위험 가중치
 → 바젤1과 달리 획일적으로 부여 X
 내부 : 자기자본 경직된 기준 완화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3 협약이 나오네요.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바젤 2 협약과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는 점,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였다는 점만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문단 정리
 바젤 3 등장
 →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 제외
 → 기본자본비율 최소 8%→6%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 위원회에는 2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지문의 화제를 잘 살폈더라면 1문단의 내용을 끌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아시겠죠?

"BIS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와 "바젤 협약은 ~ 현행 법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를 연결하여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도 역시 연결됩니다.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 = 곧 신뢰를 의미하겠네요. 이후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자리 잡지 못하거나 발을 들이지 못한다. 이 내용 역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문단은 1문단과 문단 간 연결을 했다면 "BIS비율 규제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이유로 비회원 국가에서도 준수된다." 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장 / 문단 간 연결이 중요합니다.

※ 5문단 정리
 재무 건전성 의심 국가 = 국제 금융 시장 진출 어려움
 우리나라도 바젤 위원회 가입 전부터 시행
 신뢰의 징표 중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마지막 문단 역시 결국에는 처음 제시한 화제와 연결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1문단에서 밝히는 바.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고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받아들인다 = 1, 5문단 연결. 이런 현실을 soft law 반면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hard law로 마지막에 다시 1문단에서 한 분류를 해줍니다. 사실상 5, 6문단은 정보량만 추가하는 지문이지 결국 앞에서 정리한 내용의 재진술이네요.

물론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모두 정정보로 처리해야 해서 매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 지문입니다.

※ 6문단 정리

국제 기구 결정 = soft law → 법적 구속력 x

국제법 (조약&관습법) = hard law → 법적 구속력 o

WEEK1 필수 문법 - 문장 성분

1. 문장 성분 : 문장을 구성하면서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

2. 문장 성분의 종류

문장 성분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이에 속함.
	부속 성분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관형어, 부사어가 이에 속함.
	독립 성분	문장의 다른 어떤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독립어가 이에 속함.

1) 주성분

1. 주어

(1)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2) 실현 방법

- ①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 주격 조사(-이/가, -께서, -에서) ex) 누나가 공부를 한다.
- ②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 보조사 ex) 누나도 학교에 갔다.
- ③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단독 ex) 누나 지금 밥 먹어.
- ④ 용언의 어간 + 명사형 전성어미 ex) 공부를 잘 하기가 쉽지 않다.

※ '주어'라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단독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 문법 개념들을 종합해서 출제할 때 지나가는 선지 또는 지나가는 사고 과정으로 필요한 정도일 것이다. 주어가 무엇인지 따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 실현 방법을 잘 숙지하고, 특히 주어를 생략하거나 주격 조사를 생략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자.

2. 서술어

(1)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2) 실현 방법

- ① 동사 (어간+어미) ex) 그가 밥을 먹는다.
- ② 형용사 (어간+어미) ex) 날씨가 좋다.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다음 세 가지를 붙여서 성립하면동사, 성립하지 않으면 형용사. 1)청유형, 2)명령형 3)-(-)는

- ③ 체언 + 서술격 조사(-이다) ex) 그녀는 가수이다.
- ④ 용언의 어간 + 연결 어미 ex) 그녀는 가수이고 그는 강사다.
- ⑤ 서술절 ex) 그분은 키가 크다.

(3)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 ①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
- ②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
 - ※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두 자리 서술어 : 닮다, 비슷하다, 향하다, 적합하다
- ③ 세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
 - ※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 : 주다, 빌리다, 두다, 넣다, 삼다

※ '서술어'는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으로 단독 문제가 가능하다. 다양한 사례를 두루 접하며 친숙해져야한다. 서술어 자릿수는 용언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외운다기보다는 문제 풀이 감각을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단, 주성분에 속하지 않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는 외워두면 좋다.

※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보조 용언은 문장에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본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함.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있는 '-아/-어' 등의 어미 뒤에 '서'를 끼워 넣을 수 없음. 옷을 사 입다.(본용언 + 본용언) → 옷을 사서 입다. 밥을 먹어 버리다.(본용언+보조 용언) → *밥을 먹어서 버리다.

3. 목적어

(1)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2) 실현 방법

- ①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 목적격 조사(-을/-를) ex) 그가 교재를 만들었다.
- ②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 보조사 ex) 그는 축구도 한다.
- ③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단독 ex) 너 축구 하니?

4. 보어

(1)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 중 주어가 아닌 것.

(2) 실현 방법

- ①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 보격 조사(-이/-가) ex) 그녀는 가수가 되었다.
* 주격조사(-이/-가)와 보격조사(-이/-가)의 형태가 동일하니 서술어를 반드시 확인한다.
- ②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 보조사 ex) 그가 애송이는 아니다.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 주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 ③ 체언(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단독 ex) 얼음이 물 되었다.

2) 부속성분

1. 관형어

(1) 기능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2) 실현 방법

- ① 관형사 ex) 그는 새 책을 샀다.
- ② 체언 + 관형격 조사(-의) ex)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 ③ 체언 단독 ex) 시골 풍경이 좋다.
- ④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전성어미 ex) 그는 예쁜 꽃을 샀다.

2. 부사어

(1) 기능 :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관형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함)

(2) 실현 방법

- ① 부사 ex) 이것은 매우 짜다.
- ② 체언 + 부사격 조사 ex) 그는 도서관에 갔다.
- ③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전성어미 ex) 오늘은 이상하게 운수가 좋다.

*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서술어 중에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음.

- ① 세 자리 서술어 ex) 날다, 주다, 삼다
- ② 두 자리 서술어 중 일부 ex)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어울리다

* 문장 성분의 실현 방법으로 자주 나오는 요소

- 1) 체언 + 격조사
- 2) 용언의 어간 + 명사형/관형사형/부사형 전성어미

3) 독립 성분

1. 독립어

(1) 문장의 다른 어떤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2) 실현 방법

- ① 감탄사 .
- ② 체언 + 호격 조사(-아/-야/-이)여 ex) 라플아 / 라플라스야 / 라플이시여